

# 신소설 작가들의 문체 지문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치악산>과 <홍도화>를 중심으로

김진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신소설 작가 확정에 대한 문체론의 의미
2. 연구 방법론: 신소설 어휘 코퍼스의 활용 문제
3. 신소설 어휘 코퍼스를 이용한 <치악산>과 <홍도화>의 복수 작가설에 대한 검증
4. <치악산>의 두 작가 이인직과 김교제의 문체적 특징
5. 결론과 과제

##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신소설 작가 확정에 대한 문체론의 의미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대소설 형성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문체에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지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에서 밝혀졌듯이 근대소설 형성기에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거나, 발행인의 이름이 저자로 기록된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지학적인 연구<sup>1</sup>를 통해 기존의 무기명 저작에 대한 작가 추정을 시도한 경우가 있어 근대소설 형성기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접근들은 작품 외적인 출판시장의 상황이나, 작가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그간 ‘저작 겸 발행인’으로 판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추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2</sup> 출판사, 인쇄소의 주소, 출판사 사장과 편집자, 저자들의 행적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증을 거친 이런 연구들은 근대소설 형성기의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 판별의 문제에 있어 작품 내적인 검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근대소설 형성기의 작품들에 대한 문체론은 그간 작가 문체론이라기보다는 신소설의 양식화와 관련하여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대 및 양식 문체에 대

<sup>1</sup> 강현조(2012), 김영민(2008), 박진영(2013) 등 참고.

<sup>2</sup> 이에 대해서는 박진영(2011)을 참고. 하지만 이런 연구의 목적 역시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나 불명확한 작가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근대소설 형성기의 전체적인 판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전반적인 근대소설 형성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확인이나 원저자의 문체, 번안 및 번역 소설과 창작 소설의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한 접근이 지배적이었다.<sup>3</sup> 이를 통해 신소설이 갖는 양식적인 문체 특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개별 작가들이 드러내는 문체적 특성들이 있는가, 있다면 각각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대소설 형성기 작가들의 개성적인 문체를 점검하는 일은 이제까지 집적된 신소설의 양식적 문체론에 대한 연구 업적을 수용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분화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근대소설 형성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보완하는 의의를 갖는다. 즉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저자 기명의 문제를 작품 내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근대소설 형성기에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가 존재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근대소설 중 상, 하권으로 분리된 작품 가운데 저자가 상이한 경우에 주목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작품들의 경우 작가 문체가 상이하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그것이 작품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지, 작가의 고유 문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하기 어려운 데 반해 상, 하권이 분리된 작품의 경우 동일한 배경, 동일한 인물, 동일한 스토리 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 때문에, 작가의 개성적 문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리라는 가정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치악산>과 <홍도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치악산(상)>은 이인직 작으로 1908년 9월 20일 유일서관에서 발행되었고, <치악산(하)>는 김교제 작으로 1911년 12월 30일 동양서원에서 발행되었다. 이렇게 동일한 작품에 대해 작가가 분리된 현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가운데, <치악산>에 대한 몇몇 초기 연구들은 이 작품이 마치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한 것처럼 작가의식이나 주제 의식에 대해 일관된 관점으로 처리하고 있다.<sup>4</sup> 또한 연구자들은 <치악산>의 경우, (상), (하)권의 작가를 이인직, 김교제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소설 형성기에 작가 문제가 비실명, 무기명 등으로 매우 혼잡하다는 상황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는 작품 내적인 검토를 통해 작가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치악산> 외에 <홍도화>의 경우도 이해조와 남궁준, 민준호 등으로 작가 기명이 분분한 작품의 예에 해당된다.<sup>5</sup> 하지만 <치악

<sup>3</sup> 양문규(2013) 참고

<sup>4</sup> 전광용이 그 예. 박진영(2011)은 이인직이 <만세보> 주필에서 <대한신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창작에 힘을 쏟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양서원으로 영입된 신진 필진인 김교제가 이인직의 명성을 이어 <치악산> 집필에 나선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추정했다.

<sup>5</sup> 중앙도서관 목록에서 '홍도화'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홍도화(상)>, 유일서관 (1908, 융희2년) 저술자: 이해조, 발행자: 남궁준  
 <홍도화(상)>, 동양서원 (연도 미상) 작자 미상  
 <홍도화(하)>, 동양서원 (1911, 명치44년), 저술 겸 발행자: 남궁준  
 등이 원문 검색 가능한 자료로 정리됨.

한편 김병선(2011) 자료집(아세아 문화사 영인본)에 의하면  
 <홍도화(상)>, 동양서원 (1912, 명치45년), 저작 겸 발행자: 민준호 (아세아 문화사 영인본)

산>의 경우 판권장에 기록된, 이인직-김교제라는 2인 작가 작품이라는 점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반면, <홍도화>의 경우 판권장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하)권 역시 이해조의 작품이리라는 추정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그러한 추정에는 남궁준이나 민준호라는 발행자와 동양서원이라는 출판사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작가 이해조의 관계, 그리고 1910년을 전후한 출판 관행 등에 대한 고증이 개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 내적인 고찰은 전무한 상태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2인 작가 문제를 단순화해 버린 위험이 있다. 이 작가들의 문체 비교를 통해 기존의 추정과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는 작품 내적인 고찰을 통해 논의가 보강이 되었다는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기존의 추정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개별 작가의 문체 연구가 작품 외적인 서지학적인 논의와 병행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 의의가 있다 하겠다.

## 2. 연구 방법론: 신소설 어휘 코퍼스의 활용 문제

근대소설 형성기 문체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기초 연구가 성과를 이루었다. 바로 신소설 어휘 코퍼스의 구축이다. 이제까지 문체론이나 문체 비교론은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존한 경향이 컸다. 물론 연구자의 직관이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어학적인 통계를 통해 검증되느냐 아니냐는 그 주장이 갖는 힘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문학 문체론에 언어학의 개입 필요성과 언어 통계학적 검토의 가능성을 역설해 온 G. 리치는 ‘문체론자는 결국 통계학자’<sup>6</sup>라며 문체론에 대한 통계학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특히 개별 작가의 문체를 점검해야 하는 마당에 각 작가의 문체적 지문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작품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언어 통계학적 방법론이 면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신소설 어휘 코퍼스는 신소설 가운데 62편의 작품에 대한 어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각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를 표제어로 삼은 90여 만 개의 어휘를 정리한 코퍼스이다.<sup>7</sup> 작가의 문체론에 대한 고찰에서 어휘 코퍼스를 이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한편 통사 구조나 형식 형태소에 드러나는 문체

---

<홍도화(하)>, 동양서원 (1911, 명치44년), 저작 겸 발행자: 남궁준

등의 상이한 판본이 존재함. 본고에서는 코퍼스 활용을 위해 김병선(2011) 자료집을 활용함.

<sup>6</sup> 계량적 문체론에 대한 리치의 입장이 제한적-미학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접근 가운데 하나로 볼 뿐, 유일하다거나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체의 정의부터 미학적 효과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인 접근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직관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문체를 일회적인 특징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서 확인되는 선택의 패턴’(p.34)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선택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빈도’로 축약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체론자를 ‘통계학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했다.

<sup>7</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과제 결과발표회 자료집(2009, 2010, 2011) 참고.

자질을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는 작가의 개성적 문체를 살피는 데 있어 필수 항목인 만큼 현재 이루어진 업적을 중심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일차적 근거로 고려하고자 한다. (통사론적 고찰이나 문법 요소와 같은 형식 형태소의 문체 자질 검토는 이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신소설 어휘 코퍼스에 의하면 <치악산(상)>의 어휘 개수는 21,541개, <치악산(하)>의 어휘 개수는 18,159개로 상권이 하권에 비해 약 18.6% 가량 많다. 그리고 <홍도화>의 경우 상권이 11,206개, 하권이 17,002개로 하권이 50%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들의 어휘 코퍼스를 토대로 <치악산>은 2인 작가, <홍도화>는 1인 작가라는 기존의 작가론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 각 작가의 개성적 문체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작품의 상, 하권의 어휘 목록을 일별하고 두 작품에 공통되는 단어 중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에 주목하였다. 문체론에서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의 의미는 전자가 현저함의 지표로, 후자는 개별성의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작품에서 일정 단어가 다른 작품에 비해, 또는 다른 작가에 비해 상대적인 고빈도를 보인다면, 그 단어는 해당 작품 또는 작가에게 두드러진 문체 표지가 될 수 있고, 일정 단어가 다른 작품이나 다른 작가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해당 작품에서 배타적으로 보인다면 그 단어 목록은 해당 작가의 문체 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대로 <홍도화> 상, 하권이 이 해조 1인 작가에 의한 창작이고, <치악산> 상, 하권이 이인직, 김교제의 2인 작가에 의한 창작이라면 동일 어휘를 비교했을 때, <홍도화> 상, 하권의 상대 빈도 차이보다 <치악산> 상, 하권의 상대 빈도 차이가 현저해야 할 것이다. 즉, 같은 어휘의 상대 빈도를 통해 <홍도화> 상, 하권을 대조군으로 하여 <치악산> 상, 하권의 2인 작가설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 검증된다면, 이제 <치악산>의 상, 하권에 드러난 문체 차이를 통해 이인직이나 김교제의 개성적 문체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각 작가의 문체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문체 표지들을 <치악산> 어휘 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치악산>과 <홍도화>의 어휘 목록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표1>을 얻게 되었다.

- (1) <치악산> 상, 하권을 각기 a, b, <홍도화> 상, 하권을 각기 c, d라고 편의상 부른다.
- (2) 빈도 비교를 위하여 a, b에서의 중복 어휘를 따로 추린다. 같은 작업을 c, d에 대하여 반복한다.
- (3) (2)에서 절대 빈도 10 이상인 어휘 가운데 a와 b를 비교하여 상대 빈도 100% 이상 차이 나는 어휘들과, 절대 빈도 100 이상인 어휘 가운데 상대 빈도 50% 이상

차이가 나는 어휘들을 따로 추린다.<sup>8</sup> 같은 작업을 c, d에 대하여 반복한다.

(4) (3)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a, b, c, d 공통으로 출현하는 어휘들을 추린다.<sup>9</sup>

(5) (3) 가운데 a, b, c, d에 상호배타적으로 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일별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리된 <표1>을 대상으로 본론에서는 먼저 <치악산> 상, 하권을 대상으로 고빈도 어휘에서 비롯되는 상대빈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정도의 차이가 <홍도화>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보이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치악산>과 <홍도화>의 작가를 각각 2인, 1인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이 정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sup>10</sup> 그 뒤에는 <표1>에서 특정 작가에게 배타적으로 보이는 어휘 형태를 중심으로 개별 작가의 개성적 문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신소설 어휘 코퍼스를 이용한 <치악산>과 <홍도화>의 복수 작가설에 대한 검증

아래 표는 <치악산> 상, 하권과 <홍도화> 상, 하권의 어휘 목록 가운데 전술한 (4)와

---

<sup>8</sup> 빈도 10이하의 어휘는 의미 추출을 위해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빈도 100 이상 되는 어휘는 그 차가 50% 정도가 벌어져도 절대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포함한다.

<sup>9</sup> 이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됨이 적다고 판단되는 어휘들, 예컨대 대명사, 접속어, 어말 어미의 다양한 유형 등의 어휘가 추려진다. 내용 구속력이 큰 어휘는 서로 다른 작품에서는 공통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sup>10</sup> 위의 목적을 위해 다른 통계 방법을 상정해 보기도 하였다. 예컨대 작품의 작가가 동일인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에서 치악산(상)과 치악산(하)의 상관계수와 홍도화(상)과 홍도화(하)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두 개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것인데, 이를 통해 치악산의 상관계수가 0.909583, 홍도화의 상관계수가 0.936075로 치악산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까닭은 상관계수는 치악산(상)의 변화에 따라 치악산(하)의 어휘 빈도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변동하는 값을 나타낸 것이므로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따져야 하는 본문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먼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각 작품의 모든 어휘들의 상대빈도(각 어휘 빈도를 총 어휘 수로 나눈 값)를 구하고 상, 하권의 어휘의 상대빈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는 하나의 단어가 상, 하권에 따라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치악산>에서 상대빈도 차이의 1위에 등재된 단어가 상, 하권 각각 688, 710의 빈도를 보인 '하다'로 22, 183의 빈도를 보인 '에그'와 비교해 보면 신뢰할 수 없는 통계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다'의 상대빈도 차이가 0.010931, '에그'의 상대빈도 차이가 0.010650으로 '하다'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체 비교에서는 '에그'가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다'의 상대빈도 차이 값이 높은 이유는 '하다'의 상대 빈도 자체의 값이 0.03469, 0.04562로 매우 높아 그 차이가 '에그'와 같이 현저히 상, 하권의 빈도 차이가 있는 값(0.001109, 0.011760)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빈도와 상대빈도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이상의 반례를 통해 엑셀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는 하지 않기로 하고, 본문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문체 차이에 의미가 있는 어휘들을 선별하였다.

(5)의 결과이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연번 34번 가운데 상호배타적인 빈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대명사나 접속사, 의존 명사 또는 어미 등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문체표지들이 지배적이다.

<표 1> <치악산>과 <홍도화>의 상, 하권 어휘 빈도 비교

연 번	문체표지	치악산				홍도화			
		이인직		김교제		이해조(민준호) <sup>11</sup>		남궁준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1	-더라, -라 (종결)	79	0.3667	35	0.1927	15	0.1338	24	0.1411
2	-다 (종결)	345	1.6015	121	0.6663	51	0.4551	136	0.7999
3	것(nb)	235	1.0909	128	0.7048	148	1.3207	232	1.3645
4	그(mm)	326	1.5133	283	1.5584	151	1.3474	273	1.6056
5	그것(np)	30	0.1392	11	0.0605	3	0.0267	15	0.0882
6	그날(ng)	31	0.1439	5	0.0275	0	0	3	0.0176
7	그러나 (ma)	23	0.1067	2	0.0110	3	0.0267	8	0.0470
8	그렇다 (va)	56	0.2599	18	0.0991	12	0.1070	19	0.1117
9	그리하다 (vv)	8	0.0371	22	0.1211	5	0.0446	14	0.0823
10	나(np)	332	1.5412	155	0.8535	92	0.8209	188	1.1057

<sup>11</sup> 전술한 바와 같이 <홍도화>의 여러 판본 가운데, 본고에서는 어휘 코퍼스의 대상이 된 민준호, 남궁준 기명의 '아세아 문화사 영인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홍도화>에 대한 논의는 이해조, 남궁준을 기명으로 하는 유일서관(상), 동양서원(하) 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문제는 어휘 코퍼스 구축을 위한 텍스트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사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홍도화>의 저자 문제는 일단 복수 작가설에 대한 검증에 있으므로 상, 하권의 비교를 통하여 각 권의 작가가 실제 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사람에 의한 창작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준호, 이해조로 달리하는 <홍도화> 상의 판본 문제는 본고에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11	너(np)	167	0.7752	113	0.6222	18	0.1606	121	0.7116
12	단기다 (vv)	0	0	17	0.0936	12	0.1070	2	0.0117
13	당기다 (vv)	13	0.0603	0	0	0	0	0	0
14	단니다 (vv)	0	0	0	0	0	0	4	0.0235
15	돌아당기 다(vv)	7	0.0324	0	0	0	0	0	0
16	돌아단기 다(vv)	0	0	11	0.0605	2	0.0178	0	0
17	동네	16	0.0742	0	0	0	0	0	0
18	동리	0	0	23	0.1266	18	0.1606	3	0.0176
19	때(ng)	62	0.2878	20	0.1101	20	0.1784	19	0.1117
20	마음(ng)	124	0.5756	30	0.1652	12	0.1070	9	0.0529
21	만일(ng)	15	0.0696	6	0.0330	7	0.0624	11	0.0646
22	맞나다 (vv)	2	0.0092	28	0.1541	14	0.1249	5	0.0294
23	만나다 (vv)	18	0.0835	0	0	0	0	5	0.0294
24	백돌(nm)	44	0.2042	5	0.0275	0	0	0	0
25	산(ng)	42	0.1949	8	0.0440	4	0.0356	10	0.0588
26	췌네(np)	43	0.1996	11	0.0605	0	0	11	0.0646
27	아씨(ng)	68	0.3156	27	0.1486	10	0.0892	53	0.3117
28	오날(ng)	37	0.1717	0	0	2	0.0178	4	0.0235
29	오늘(ng)	5	0.0232	11	0.0605	7	0.0624	0	0
30	이때(ng)	6	0.0278	21	0.1156	4	0.0356	9	0.0529
31	자세(ma)	10	0.0464	0	0	4	0.0356	5	0.0294
32	자세히 (ma)	2	0.0092	10	0.0550	2	0.0178	2	0.0117
33	에그(ic)	22	0.1021	188	1.0352	18	0.1606	36	0.2117

34	흥(ic)	0	0	34	0.1872	0	0	0	0
총 어휘 수		21,541		18,159		11,206		17,002	

<표 1>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상, 하권 비교에서 상대 빈도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는 항목들이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홍도화>에 비해 <치악산>에서 붉은색 표시가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홍도화>의 경우, 34개의 항목 가운데 연번 11, 12번만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 반해 <치악산>의 경우 17개 항목에서 두드러진 상대 빈도 차를 보였다. 이는 <치악산>이 두 명의 서로 다른 작가일 가능성이 더 큼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번 12, 13, 14의 ‘다니다’의 이형태인 ‘단기다’ ‘당기다’ ‘단니다’의 경우, ‘단기다’는 이인직을 제외한 다른 세 명의 기명 작가들에서 출현하지만, ‘당기다’의 경우는 이인직에게서만 유일하게 발견된다. 만일 <치악산>이 동일 작가에 의한 작품이라면 같은 의미를 가진 이형 단어 출현이 이와 같이 일관되게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번 12, 13, 14의 예는 작품 내적으로 <치악산>이 동일 작가에 의해 쓰이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이형태가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된 예는 17, 18번, 22, 23번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홍도화>의 경우, 연번 18과 22번의 단어가 상, 하권에 고루 등장하는 데 반해 <치악산>은 거의 배타적인 양상으로 출현한다는 점은 <홍도화>는 1인 작가, <치악산>은 2인 작가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감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번 33과 34의 경우는 김교제에게서만 압도적인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에그’의 경우 <치악산> 상권과 하권의 경우 약 10배 정도의 출현 빈도 차를 보이며, <홍도화>는 거의 비슷한 출현 빈도를 보여 ‘에그’라는 감탄사가 김교제에게서 현저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3</sup> 감탄사 ‘흥’의 경우 역시 <치악산> 하권에만 출현하고 있어 <치악산> 상, 하권의 작가가 다른 인물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 4. <치악산>의 두 작가, 이인직과 김교제의 문체적 특징

본고에서 두 작품, <치악산>과 <홍도화>를 대상으로 하여 어휘 목록의 통계 처리를 시도한 이유는 두 작품을 대등하게 다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치악산>의 2인 저자를 입증하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홍도화>를 설정했던 것이다. 앞 단락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같은 의미를 드러내는 이형태 단어들에 주목하여 <치악산>에는 상, 하권에 상호

<sup>12</sup> <치악산> 상, 하권에서 보이는 어휘의 상호배타적인 출현은 ‘단기다’ ‘당기다’의 합성 조어형인 ‘돌아다니다(당기다)’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배타적으로 출현하는 어휘들이 다수 존재하는 데 반해 <홍도화>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음을 통해 <치악산>의 2인 작가설을 문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제, <치악산>을 중심으로 여기에 드러난 이인직과 김교제의 독특한 작가 개성적 문체를 어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어미 사용에서 두드러지는 이인직의 특징은 <표 1>에서 보이다시피 연번 2번의 ‘-다’라는 구어체 종결어미가 현저하다는 점이다<sup>14</sup>. 물론 연번 1에서 볼 수 있듯 문어체 종결어미인 ‘-더라’의 빈도 역시 이인직이 김교제에 비해 두드러지지만 문어체 차이는 2배가 안 나는 데 비해 구어체 종결어미의 차이는 3배를 훌쩍 넘어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번 1, 2의 정보에 의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인직이 김교제에 비해 문장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과 이인직의 경우 구어체 실험을 김교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상, 하권에서 보이는 종결어미의 차이가 <홍도화>는 거의 비슷하거나, 2배 차이가 채 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인직의 문체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연번 5, 6번의 ‘그것’, ‘그날’의 빈도이다. 이 두 어휘의 빈도는 이인직에게서 압도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그날’의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전에 언급된 것을 정확히 뒤에서 다시 받아 지시하는 ‘대명사’, ‘관형사+명사’로 문맥의 논리성을 상당히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전 시대 소설들이 논리의 비약과 장면의 전환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과 비교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근대 문체의 특징으로 ‘-다’의 종결 어미형과 3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들면서 그 시작을 김동인이나 이광수에게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소설 작가 안에서 비교해 보면 단연 이인직이 근대적 문체를 일관되게 시도한 작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는 이인직의 창작이 김교제에 비해 시간적으로 2년이나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의 근대 지향적인 문체 실험이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그것’, ‘그날’의 빈도와 비교해 볼 만한 항목으로 연번 30의 ‘이때’를 눈여겨 볼 만하다. ‘이때’가 신소설에서 주로 장면의 급작스런 전환에 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환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교제가 상당히 전근대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교제 문체의 전근대적인 성격은 연번 18, 22와 같이 ‘동리(洞里)’, ‘맛나다(>만나다)’와 같은 고어 형태의 표기를 일관되게 채택한 것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이인직이 ‘동네’, ‘만나다’와 같이 근대적인 표기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연번 7, 21과 같은 문맥을 분명히 하는 접속 부사나 논리성을 강조하는 문장 부

---

<sup>14</sup> 김상태(1993)는 ‘-다’ 종결어미를 ‘-더라’와 구별하여 후자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일인칭으로 전달하려는 데 반해 전자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대적 개인의식의 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pp. 298-307 참조)

<sup>15</sup> 일본의 영향을 받아 김동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 문체를 자세히 소개한 안영희(2007) 역시 종결어미 형태와 3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주목했다.

사의 사용도 이인직뿐만 아니라 <홍도화>의 작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빈도가 적게 나타나는 것 역시 김교제의 문체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악산>의 창작 과정에서 이인직에 의해 완성된 상권을 김교제가 이어 창작, 출판하면서 애초에 이인직이 구상한 문학적 장치는 하권에 이르러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권이 치악산이라는 제목의 상징성이나, 치악산이라는 배경이 서사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반해 하권은 그런 의미가 상당 부분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권의 경우, 소설의 도입부에 치악산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주인공에게 닥친 위험한 현실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실제 서사 전개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는 공간을 치악산으로 설정한 것 등이 유기성을 확보하는 데 비해 하권의 경우는 그런 의미가 거의 전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연번 25의 '산'이라는 어휘의 빈도 차이이다. 김교제는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의 공간 배경으로 산이 등장하는 <홍도화>와 유사한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어 이인직이 애초에 구상한 산을 둘러싼 상징적 의미나 사건과의 유기적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과 과제

이제까지 <치악산>과 <홍도화>의 상, 하권에 등장한 어휘들의 빈도를 중심으로 (1) <치악산> 상, 하권은 복수 작가, <홍도화>는 동일 작가일 가능성과 함께 (2) <치악산>의 상권 저자인 이인직과 하권 저자인 김교제의 개성적 문체에 대해 논했다. 그 결과 <치악산>은 같은 의미를 가진 이형태의 단어들이 매우 상호 배타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과 빈도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 목록이 <홍도화>에 비해 <치악산>이 훨씬 길다는 점을 통해 <치악산> 상, 하권의 작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작품 내재적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 문체의 지표들, 예컨대 구어체 '-다'의 종결형이나 문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지시어, 접속어, 문장 부사 등의 사용이 김교제에 비해 이인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이인직이 여타의 신소설 작가들에 비해 근대적 문체 실험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존에 신소설의 양식적 문체에만 머물러 있던 신소설 문체론을 작가 문체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휘 목록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의 문체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 지문의 가능성이 있는 어휘들이 해당 작가의 기명으로 출판된 다른 작품에도 일관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홍도화>에 대해서는 1인 작가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결론에만 도달했지, 그것이 이해조, 남궁준, 민준호 가운데 누구의 작품인가에 대한 결론까지 가려면 마찬가지로 저자의 기명으로 올라있는 다른 작품들과 <홍도화>의 문체 표지를 비교해 보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차 자료

이인직 (1908), <치악산> (상), 유일서관  
김교제 (1911), <치악산> (하), 동양서원

이해조 (1908), <홍도화> (상), 유일서관  
민준호 (1912), <홍도화> (상), 동양서원  
남궁준 (1911), <홍도화> (하), 동양서원

### 2차 자료

강현조 (2011), “신소설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신자료 <한월 상>(1908)의 소개 및 신소설의 저작자 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7권, 7-41쪽.

----- (2012),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 번안: 근대 초기 번역, 번안 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권, 7-39쪽.

김병선 (2011), <신소설 어휘 사전 편찬 II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과제 결과발표회 자료집

김상태 (1993), <문체의 이론과 해석>, 집문당

김영민 (2008), “19세말 이후 20세기 초반 한국의 근대문학: 서사 문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9권, 133-157쪽.

박진영 (2013),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문학이라는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51권, 423-453쪽.

----- (2011), <한국근대소설사의 안과 밖>, 소명출판.

양문규 (2013), “초기 한국 근대소설의 문체 형성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52권, 82-108쪽.

안영희 (2007), “한일 근대의 소설의 문체”, <일본어문학> 제 32집, 229-254쪽.

이희정 (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문체변화 과정 (1): 1910년대 전반기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3권, 79-97쪽.

Short, M., Leech, G.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Routledge